

西周 中期 金文 어휘와
이를 활용한 靑銅器 斷代 연구(續)
— 匱侯鼎을 중심으로*

金 信 周**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器物 소개
- III. 斷代 근거 명문에 대한 고찰
 - 1. 祿
 - 2. 吝
 - 3. 腳
 - 4. 咸
- IV. 결론

I. 들어가는 말

중국 고대 문명의 精髓를 대표하는 청동기 문화는 서주시기에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며, 그 중 穆王에서 夷王에 이르는 서주 중기는 서주 초기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형식의 출현이라는 특징이 공존하고 있는 시기이다. 어휘 사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포착되는데, 서주 초기에 사용되던 어휘나 형식이 서주 중기에 일부 계승되는가 하면, 서주 중기에 들어서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어휘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밖에 서주 초기에 이미 출현했지만, 서주 중기에는 새로운 의미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332-A00111).

2014년 7월 12일 제5회 한자·한자교육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문장을 수정 보완한 글임.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항목이 추가되어 쓰이는 현상도 자주 눈에 띈다.

이렇듯 어휘는 생멸을 거듭하는 가운데, 각 시기에 따라 그 쓰임이나 사용 빈도에 있어 특징을 드러내며, 이는 청동기의 제작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금문 어휘의 斷代 기능에 입각하여 시대 판정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왔던 噩侯鼎의 鑄造 시기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噩侯鼎의 제작 시대는 서주 중기와 후기로 의견이 나뉘며, 연속성이라는 어휘 사용의 특성상 서주 초기의 면모도 다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각도에서 噩侯鼎 명문상의 어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서주 중기를 중심으로 처음 출현한 어휘들에 대한 분석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서주 초중기에는 사용되었으나 서주 후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휘에 대한 고찰이며, 마지막으로 서주 초기와 중기에 모두 출현하나 서주 중기에는 새로운 의미와 용법으로 사용된 어휘에 대한 논의이다.

필자는 앞서 서주 초기와 중기의 어휘 특징을 활용한 청동기 斷代 연구를 시도해왔는데, 본고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연구로서, 금문의 개별 어휘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라는 점과 斷代 연구의 근거 자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II. 器物 소개



噩侯鼎은 본래 陳介祺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陳大年이 上海博物館에 기증한 것으로¹⁾, 鄂侯馭方鼎, 馭方鼎, 王南征鼎, 噩侯馭方鼎, 鄂侯御方鼎으로도 불리며, 본고에서는 《殷周金文集成》의 명칭을 따랐다. 기물의 형태를 살펴보면, 높이는 35.3cm, 직경은 31.1cm이며, 2개의 立耳(기물의 입구의 테두리에 솟아 있는 귀 형태)에 배 부분이 半球形으로 비교적 깊은

1) 陳佩芬 〈上海博物館新收集的西周青銅器〉; 《文物》1981年 第9期, 33-34쪽 참조.

편이다. 목 부분에는 S자 형태의 夔龍紋이 扉棱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弦紋 한 줄이 장식되어 있다. 다리는 蹄足 형태로 獸面紋과 扉棱이 부조되어 있다. 기물 내벽에 重文과 畝文을 합해 86자의 명문이 주조되어 있으며, 이 중 79자가 殘存해 있는데, 일부 글자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끊어 읽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일치하는 편이다.



王南征, 伐角、僑, 唯還
 自征, 才(在)坏. 噩(鄂)侯駟(駟)方
 內(納)壺于王, 乃鬲(裸)之. 駟(駟)
 方吝(侑)王. 王休(宴)宴, 乃射, 駟(駟)
 方躑(合)王射. 駟(駟)方休(關),
 王寡(揚), 咸(飲). 王親(親)易(賜)駟(駟)
 □[方]□[玉]五穀(穀)、馬四匹、矢五
 □[束]. □[駟(駟)]方拜手頤(稽)首, 敢
 □[對]□[揚]天子不(丕)顯休(釐, 賚),
 □[用]乍(作)障(尊)鼎, 其邁(萬)年
 子孫永寶用. 5.2810²⁾ 噩侯鼎

(왕께서 남쪽으로 출정하셔서 角과 僑 지역을 정벌하시고, 정벌지에서 돌아오실 때, 坏 지역에 머무르셨다. 鄂侯 駟方은 왕께 술을 하사받고, (왕께서는) 鄂侯에게 裸饗의 예를 행하셨으며, 駟方은 왕께 잔을 돌렸다. 왕께서 연회를 베푸시고, 射禮를 여시니, 駟方이 왕과 짝을 이뤄 射禮를 거행했다. 駟方이 射禮를 마쳤고, 왕께서는 (射臺에서) 물러나셨다.³⁾ 마시기를(飲酒禮) 끝냈다. 왕께서 친

2) 본고에 인용된 청동기 명문 중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에서 편찬한 《殷周金文集成》(北京, 中華書局, 1984-1994)의 탁본을 참고로 한 것은 이후 따로 서명을 표기하지 않고, 탁본 번호만을 명기하며, 기물의 명칭 역시 이를 따르기로 하겠다.

3) ‘駟(駟)方休(關), 王寡(揚)’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필자는 ‘休’는 ‘息’(《爾雅·釋詁》), ‘關’은 ‘盡’(《史記·高祖本紀》)의 의미로 보았다. ‘寡’의 경우, 많은 학자들이 이 글자를 ‘宴’으로 보았지만, 陳夢家是 ‘揚’으로 考釋했는데, 명문 앞쪽의 ‘宴’과는 자형이 완전히 다르고, 구조상 ‘揚’으로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기에 필자는 陳夢家の 견해를 따랐다. 다만 뜻풀이에 있어서 陳夢家是 ‘과녁을 위쪽을 맞혀 명중시키지 못하다’로 해석했지만, 필자는 이러한 내용이 금문의 일반적인 풍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禮

히 馭方에게 옥 다섯 쌍, 말 네 필, 화살 다섯 묶음을 하사하였다. 馭方은拱手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히 천자의 크게 빛나시는 은택을 찬양하고, 귀중한 鼎을 제작하니 오랫동안 자손들은 영원히 소중하게 사용할지이다.)

噩侯鼎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穆王(唐蘭)⁴⁾, 共懿(曹淑琴)⁵⁾, 孝王(陳夢家)⁶⁾, 夷王(劉翔, 劉啓益)⁷⁾, 厲王(容庚, 郭沫若, 馬承源, 彭裕商, 李學勤, 朱鳳瀚)⁸⁾, 宣王(劉雨)⁹⁾, 西周晚期(《殷周金文集成》, 《商周青銅器銘文暨圖像集成》¹⁰⁾) 등 주로 서주 중기와 후기로 의견이 나뉜다. 劉翔은 噩侯鼎과 5.2833 禹鼎의 제작 시기가 같다는 전제하에 먼저 7.3870 叔向父爲備簋 명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禹鼎을 夷王 시대의 기물로 추정함으로써 噩侯鼎의 시기를 판정했고, 劉啓益은 7.3928 噩侯簋 명문인 ‘噩(鄂)侯(乍)作王姑媵簋’에 보이는 ‘王姑’이 夷王의 왕후라는 것을 근거로 噩侯簋와 噩侯鼎을 夷王 시대의 기물로 보았다. 厲王說의 경우, 郭沫若이 주장한 이후 비교적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李學勤과 朱鳳瀚은 伯戔父簋 명문에 기록된 南征을 논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事跡이 보이는 1.269 缺鐘과 9.4459 蓼生簋를 포함하여 噩侯鼎까지 모두 厲王 시기의 것으로 판단했다.¹¹⁾

記·玉藻의 “古之君子 ……退則揚之.”에서의 ‘揚’의 의미로 보았다.(각주 43참고)

- 4) 唐蘭《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北京, 中華書局, 1986), 404쪽 참조.
- 5) 曹淑琴〈噩器初探〉:《江漢考古》1993年 第2期, 60-64쪽 참조.
- 6) 陳夢家《西周銅器斷代》(上冊) (北京, 中華書局, 2004), 216-219쪽 참조.
- 7) 劉翔〈周夷王經營南淮夷及其鄂之關係〉:《江漢考古》1983年 第3期, 40-46쪽; 劉啓益《西周紀年》(廣州, 廣東教育出版社, 2002), 363-364쪽 참조.
- 8) 容庚《商周彝器通考》(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40쪽; 郭沫若〈禹鼎跋〉:《光明日報》, 1951年7月7日; 馬承源《商周青銅器銘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98), 281쪽; 彭裕商《西周青銅器時代綜合研究》(成都, 巴蜀書社, 2003), 393쪽; 李學勤〈談西周厲王時器伯戔父簋〉:《文物中的古文明》(北京, 商務印書館, 2008), 299-302쪽; 朱鳳瀚〈由伯戔父簋銘再論周厲王征淮夷〉:《古文字研究》第27輯(北京, 中華書局, 2008), 192-196쪽 참조. 郭沫若은 처음에는 夷王이라고 주장했으나(《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107-108쪽), 후에 厲王으로 변경했다.
- 9) 劉雨〈西周金文中的射禮〉:《金文論集》(北京, 紫禁城出版社, 2008), 10쪽 참조.
- 10) 吳鎮烽 編著《商周青銅器銘文暨圖像集成》(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5.2564 참조.
- 11) 1.269 缺鐘의 斷代에 관해서는 역대로 昭王說과 厲王說이 공존해왔는데, 葉正渤의

噩侯鼎 명문에는 사건 발생의 시간과 관련된 정확한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제까지 학자들은 다른 기물과의 명문 내용 비교를 통해 그 시대를 比定하거나, 기물의 형태나 紋飾에 근거해 그 제작 시기를 가늠해왔다. 주지하듯이 청동기의 제작 시기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참고 기준이 있을 수 있으며, 명문에 사용된 어휘 역시 그러한 중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시대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는 어휘를 명문 안에서의 출현 순서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斷代 근거 명문에 대한 고찰

1. 裸

청동기 명문에서 ‘裸’로 판단할 수 있는 자형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자형구조를 지닌 글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해왔으며, 이 글자는 ‘裸’의 初文으로, 두 손으로 酒器를 받들고 裸禮를 지내는 모습으로 분석하는 견해가 현재까지는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卂’이나 ‘又’의 편방이 있는 자형은 裸祭를 나타내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인 ‘卩’ 편방이 있는 종류의 자형은 裸饗을 표시한다고 보기도 하는데,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꼭 이러한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卂’(혹은‘又’)과 ‘卩’ 편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

경우, 獸鐘을 昭王 시기의 기물로 보았고, 이에 근거해 伯戣父簋 역시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金文標準器銘文綜合研究》(北京, 線裝書局, 2010), 111-116; 119-123쪽 참조.

해서는 爵과 같은 주둥이가 있는 禮器로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견해였으나, 賈連敏이 ‘瓚’과 같은 ‘勺’ 종류의 기물이라는 것을 밝힌 이후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賈連敏의 주장은 ‘裸’와 관련된 전래문헌 기록과 ‘瓚’의 실제 출토문물 상황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卍’(혹은‘又’)과 ‘卩’ 편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를 ‘瓚’으로 보기에는 ‘裸’ 및 ‘瓚’과 관련된 모든 고문자 자형의 구조가 깔끔하게 분석되기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¹²⁾

갑골문과 금문 중에 ‘𠄎’로 대표되며 ‘瓚’로 考釋되는 일련의 금문 자형에 대해 臧振은 이 글자는 郭沫若의 주장처럼 ‘甗’이 아니며, 灌禮에 쓰이는 玉器나 圭璋이 甗에 꽃혀 있는 모양이라고 분석했고¹³⁾, 方稚松은 臧振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자루 형태¹⁴⁾의 玉器이고 아랫부분은 ‘同’이라고 보았다. 또한, 方稚松은 전래문헌상에 보이는 ‘瓚’의 형태, 즉 자루 부분은 玉 재질이고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국자형 기물이라는 기록이 ‘𠄎’의 자형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𠄎’의 아랫부분 자형으로 분석한 ‘同’이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西安의 한 청동기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다가 최근 소개된 酒器는 위의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¹⁵⁾ 內史堯同로 명명된 이 기물은 보편적으로 ‘觚’라고 불리는 형태의 청동기로, 그 명문에 ‘乍(作)裸同’라는 기록을 통해 ‘觚’의 본래 명칭은 ‘同’이며, 송대 사람들에 의해 명명된 ‘觚’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 기물을 처음 소개한 吳鎮烽은 ‘同’과 ‘𠄎’의 관계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필자가 보기엔 ‘𠄎’는 손잡이 부분이 긴 자루 형태의 ‘瓚’이 ‘觚’(즉 ‘同’)에 꽃혀 있는 형태로 판단되며, 이와 비교하여 위에서 제시한 ‘裸’의 여러 자형은 자루 형태(𠄎)나 국자 형태¹⁶⁾(𠄎)의 ‘瓚’을 손에 쥐고 裸

12)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方稚松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釋殷墟花園莊東地甲骨中的瓚、裸及相關諸字〉; 《中原文物》2007年 第1期, 83-87쪽 참조.

13) 臧振 〈玉瓚考辨〉; 《考古與文物》2005年 第1期, 27-32쪽 참조.

14) 손잡이 부분이 길고, 국자 부분이 작은 형태의 ‘瓚’을 본고에서는 자루 형태의 ‘瓚’으로 부르기로 한다.

15) 吳鎮烽 〈內史堯豐同의 初步研究〉; 《考古與文物》2010年 第2期, 30-34쪽 참조.

16) 자루 형태의 ‘瓚’보다 손잡이 부분이 짧고 국자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형태의 ‘瓚’을 본고에서는 국자 형태의 ‘瓚’으로 명명한다.

禮를 행하거나 ‘瓚’을 이용해서 ‘鬲’ 같은 酒器에서 술을 퍼서 裸禮를 거행하고 있는 모양(𠄎) 등으로 분석된다. 즉, ‘裸’의 자형에서 ‘卩’(혹은‘又’)과 ‘冂’ 편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瓚’ 자체인 것도 있지만, ‘瓚’과 ‘鬲’ 등의 酒器가 결합된 형태도 있으며, 과거 일부 학자들이 ‘裸’를 ‘福’으로 해석했던 이유는 ‘鬲’가 ‘裸’의 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裸’의 일부 고문자 자형 중에는 ‘鬲’가 없는 자형도 있긴 하나, ‘卩’(혹은‘又’), ‘冂’, ‘瓚’의 세 구성요소에 술을 담고 있는 기물(‘鬲’ 등)이 결합된 자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을 보면, 본래 ‘瓚’ 혹은 ‘裸’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일지라도 술을 담은 기물(‘鬲’ 등)이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를 말해준다. 이는 賞賜 명문에서 ‘瓚’ 등의 酒器가 하사되는 경우 秬鬯酒가 함께 하사되지만, 반대의 경우 꼭 그렇지 않은 현상, 즉 어떤 경우에도 秬鬯酒가 주가되고 酒器가 부가 되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瓚’과 ‘裸’의 여러 자형들을 살펴봤을 때, ‘𠄎’처럼 술이 담겨져 있는 기물의 배 부분이 깊은 경우 자루 부분이 긴 ‘瓚’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⁷⁾ 일단 본고에서는 ‘裸’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고찰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형과 관련된 면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다.

아래에서는 금문 중 ‘裸’으로 考釋되는 글자가 보이는 용례를 중심으로 그 쓰임을 분석해보고, 噩侯鼎에서의 의미와 비교 검토를 해본 후, 이를 噩侯鼎의 제작 시기의 판정 근거로 활용해보도록 하겠다.¹⁸⁾

- (1) 王才(在)周, 周師光(既)守宮事, 裸. 周師不(丕)𠄎(丕)易(賜)守宮絲束…….
16.10168 守宮盤
(왕이 周의 岐周에 계실 때 周師가 守宮에게 관직을 하사하시고, 裸禮를

17) ‘瓚’이나 ‘裸’으로 考釋되는 자형들 중에서 기물의 아랫부분이 ‘鬲’이나 ‘甗’과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자루 부분이 긴 형태의 ‘瓚’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孫慶偉는 자루 형태의 ‘瓚’을 ‘圭瓚’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형태의 ‘瓚’은 ‘璋瓚’이라 보았는데(《周代裸禮的新證據 — 介紹震旦藝術博物館新藏的兩件戰國玉瓚》; 《中原文物》2005年 第1期, 69-75쪽 참조), 一說로 참고할 만하다.

18) ‘裸’의 세부 자형은 명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편의를 위해 각각을 隸定한 자형으로 제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裸’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또한, 12.6515 萬謨解와 5.2839 小盂鼎 명문에도 ‘裸’로 考釋되는 글자가 존재하긴 하나, 명문 훼손 등의 이유로 자형 및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 거행하셨다. 周師께서 守宮에게 비단 등을 하사하셨다.)
- (2) 王才(在)葬京, 畜(禘)于瑯(昭)王. 鮮穰(蔑)曆(歷), 裸. 王韞(賞, 贛)裸玉三品、貝廿朋. 16. 10166 鮮盤
(왕께서 葬京에 계실 때 昭王께 큰 제사를 올리셨다. 鮮을 격려하시고, 裸禮를 베풀어주셨다. 왕께서 裸禮를 거행하는데 쓰였던 玉器 세 점과 貝 이십 붕을 하사하셨다.)
- (3) 王才(在)上侯臣, 奉(祓). 裸不指, 易(賜)貝十朋. 5.2735 不指方鼎
(王께서 上侯의 행궁에 계시면서 祓祭를 드리셨다. 不指에게 裸禮를 행하시고, 貝 십 붕을 하사하셨다.)

위의 세 금문 용례에 쓰인 ‘裸’은 모두 동사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왕이 해당 기물을 제작한 귀족에게 鬱鬯酒로써 접대를 하는 ‘裸饗의 禮를 거행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¹⁹⁾ 먼저 (1)守宮盤 명문의 경우, 많은 학자들이 ‘周師光守宮事, 裸周師, 不(丕)醑(丕)’로 끊어 읽고, 周師에게 裸禮를 거행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여러 문헌상의 기록에서 보듯이 裸禮는 왕이나 상관 등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儀禮라는 점과 (2)鮮盤 명문에서처럼 ‘裸’이 단독으로 句를 구성하는 용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위와 같이 ‘周師光(既)守宮事, 裸’로 끊어 읽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뒷부분에 이어지는 ‘周師不醑易(賜)守宮絲束……’에 대해서는 ‘不醑’의 뜻이 확실치는 않지만, 만약 ‘丕丕’로 읽고, ‘大’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絲束’ 이후로 열거된 하사품이 많은 것을 비추어보았을 때, 상을 후하게 주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2)鮮盤(실제로는 簋) 명문에서는 穆王이 昭王에게 禘祭를 드리고 난 후, 鮮을 면려하고 裸饗의 禮로써 예우해줌과 동시에 상을 내리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명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일반적인 금문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昭王의 祭禮 진행 과정에서 鮮이 왕을 보필하였고, 穆王은 이를 치하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葉正渤은 ‘裸’을 ‘偁’으로 隸定하고 鮮이 면려하는 대상의 人名으로 보았는데, ‘裸’의 자형에 대한 견해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반적으로 기물 제작자 자신이 상관의 면려 대상이 됨을 감안할 때 ‘裸’은 이 명문에서 단독으로 끊어 읽는 것이

19) 이러한 裸饗의 경우, 실제 술을 마시는 것인지, 아니면 술을 땅에 뿌려 그 향기를 맡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각기 다른 기록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 논하진 않겠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3)不指方鼎 명문을 보면, 기존에 많은 학자들이 ‘不指易貝十朋’으로 읽고 있으나, 噩侯鼎 명문에서 보듯 ‘裸’이 목적어(‘之’, 즉 鄂侯)를 취할 수 있으므로, ‘裸不指’로 끊어 읽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²⁰⁾ (3)不指方鼎 명문은 맥락상 (2)鮮盤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은데, 왕이 선왕에 대한 제사를 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물 제작자(不指, 鮮)의 보필에 대한 왕의 치하가 裸禮와 賞賜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한 ‘裸’의 세 용례는 모두 동사로 쓰인 것으로서,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뒤에 그 대상을 표시할 수도 있다. 이 세 용례는 모두 서주 중기의 기물로서, 이러한 용법의 ‘裸’이 서주 중기에 보이는 특징일 수 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으며, 다른 용법으로 쓰인 ‘裸’의 출현 시기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시대적 특징은 더욱 두드러진다.

- (4) 辛亥王才(在)廩, 降令曰: 歸裸于我多高. 企(訖), 易(賜)釐(釐). 10.539
6 毓且丁卣
(辛亥일에 왕께서 廩 지역에 계실 때 명령을 내리시며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서 나의 여러 高祖께 裸祭를 드려라. 裸祭가 다 끝나자, 상을 내려주셨다.)
- (5) 復卣(稟)琫(武)王豐(禮), 裸自天. 11.6014 趯尊
(武王의 제례를 계속해서 이어받았고, 裸祭는 天室에서 시작하셨다.)
- (6) 隹(唯)三月王才(在)成周, 征(延)琫裸自莽, 咸. 王易(賜)德貝廿朋. 5.26
61 德方鼎
(삼월에 왕께서 成周에 계시면서, 莽京에서부터 시작된 武王께 드리는 裸祭를 계속하셨다. 祭禮를 다 마쳤다. 왕께서 德에게 貝 이십 붕을 하사하셨다.)

위의 세 용례에서 ‘裸’은 모두 裸祭를 뜻하며, (4)毓且丁卣는 상대 말기의 기물이고, (5)趯尊과 (6)德方鼎은 서주 초기의 대표적인 기물이다. 이어서 다음의 용례들을 보자.

20) 唐蘭도 ‘裸不指’로 끊어 읽었다. 《西周靑銅器銘文分代史徵》北京, 中華書局, 1986, 266쪽 참조.

- (7) 王蔑庚嬴歷(歷), 易(賜)裸, 韞(賞, 贛)貝十朋. 5.2748 庚嬴鼎
(왕께서 庚嬴을 격려하시고 裸器를 하사해주시며, 貝 십 붕을 상으로 주셨다.)
- (8) 史獸獻工于尹, 咸獻工. 尹賈(賞)史獸裸, 易(賜)豕鼎一、爵一. 5.2778 史獸鼎
(史獸가尹에게 업무를 上申하였고, 업무 보고를 마쳤다.尹께서 史獸에게 裸器를 상으로 주시고, 豕鼎 한 개와 爵 한 개를 하사해주셨다.)
- (9) 成王易(賜)內史亳豐(醴)、裸. 弗敢廐(惰, 弛), 乍(作)裸同. 內史亳同²¹⁾
(成王께서 內史의 직책을 맡고 있는 亳에게 醴酒와 裸器를 하사해주셨다. 內史亳는 감히 나태하지 않을 것이며, 裸禮에 쓰이는 同을 제작하였다.)
- (10) 我乍(作)柳(禦)宗(崇, 祭?)且(祖)乙、匕(妣)乙、且(祖)己、匕(妣)癸, 征(延)祚(馭)二女, 咸反(?), 遣裸, 二禾、貝五朋. 5.2763 我方鼎
(我是 祖乙, 妣乙, 祖己, 妣癸께 禦祭를 올리고, 계속해서 妣乙과 妣癸 두 분께 제사를 드렸다. 제사가 다 끝난 후, 裸器와 禾 두 개와 貝 오 붕을 선물했다.)

(7)庚嬴鼎과 (8)史獸鼎 명문 중의 ‘裸’은 학자에 따라 ‘瓚’으로 보기도 하는데, 고문자 중에는 ‘𩇛’로 대표되는 ‘瓚’자가 이미 있고, ‘示’나 ‘冂’ 편방의 결여가 자형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필자는 이 글자를 ‘裸’으로 보았다. 이 글자가 ‘瓚’으로 주장되었던 또 다른 근거 중의 하나는 賞賜 동사인 ‘易(賜)’와 ‘賞’ 뒤에 위치해있어 하사품을 나타내는 명사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는데, 이 글자를 ‘裸’으로 보되 禮祭나 裸饗의 禮를 거행한다는 동사가 아닌 ‘裸器’를 나타내는 명사로 본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2)鮮盤 명문에 ‘王韞(賞, 贛)裸玉三品、貝廿朋’란 구문에서 보듯 ‘裸’는 禮祭나 裸禮에 쓰이는 圭瓚이나 璋瓚 등의 裸器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²²⁾

(9)內史亳同 명문에서 ‘裸’은 두 번 출현하는데, 모두 裸器를 나타내긴 하지만, 앞의 ‘裸’은 목적어로, 뒤의 ‘裸’은 관형어로 쓰인 점이 다르다. 앞의 ‘裸’에 대해서

21) 각주 14 참조.

22) 전래문헌에서도 ‘裸器’와 ‘裸玉’이란 어휘가 보인다.《周禮·春官·鬱人》:“鬱人掌裸器, 凡祭祀賓客之裸事, 和鬱鬯, 以實彝, 而陳之. 凡裸玉, 濯之陳之, 以贊裸事.”(鬱人は 裸禮에 사용되는 기물을 관장한다. 제사나 빈객 접대의 裸事に 鬯주를 담가 술 단지에 채워서 배운다. 裸玉을 씻고 진열하여 裸事을 돕는다.) 鄭《注》:“裸玉, 謂圭瓚、璋瓚.”(裸玉은 圭瓚과 璋瓚을 말한다.)

吳鎮烽은 裸禮를 베푸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필자는 (7)庚嬴鼎 및 (8)史獸鼎 명문과 마찬가지로 ‘賜……裸’의 문형에 주목하여 裸器의 뜻으로 보았다.²³⁾ ‘裸’을 단독으로 쓰인 동사의 용법으로도 고려해보았으나, 앞의 (1)守宮盤, (2)鮮盤, (3)不指方鼎 명문에서는 裸禮를 먼저 거행하고, 賞賜가 진행되는 절차가 공통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裸’을 裸禮가 아닌 앞쪽의 ‘豐(醴)’와 마찬가지로 하사품으로 보았다.

(10)我方鼎 명문 중의 ‘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裸祭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 역시 裸器의 의미로 본다. ‘遣’의 의미가 확실치는 않지만, 전체 문장 구조로 볼 때, ‘裸’는 ‘二鬯’ 및 ‘貝五朋’와 함께 ‘遣’의 목적어로 분석될 수 있으며, 전래문헌상에 보이는 ‘致胙’처럼 제사를 다 마친 후 귀족들에게 증정된 祭需의 하나로 보인다.

(7)庚嬴鼎부터 (10)我方鼎까지의 네 기물은 모두 서주 초기의 청동기로서, 명문에 쓰인 ‘裸’은 모두 裸器를 의미하며, 하사품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명문들 중의 하사품을 裸祭을 거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여기거나, 필자는 裸饗을 거행할 때 사용되었던 裸器를 하사한 것으로 본다. (9)內史亳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문의 경우, 기물 제작자가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거나((8)史獸鼎, (10)我方鼎) 왕에게 어떤 칭찬을 받을 이유가 있어 賞賜가 행해진 경우이므로, 기물 제작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裸饗을 거행하고 이 때 사용되었던 裸器를 함께 하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같은 이치로 (2)鮮盤 명문에 보이는 ‘裸玉三品’ 역시 앞서 행해진 裸饗 시 소용된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까지 살펴본 ‘裸’의 용법을 시대에 따라 정리해보면, 서주 초기에는 裸祭와 裸器의 의미가 출현 및 유행하였고, 서주 중기에 들어와서는 裸饗을 거행한다는 동사 용법의 ‘裸’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⁴⁾ 이처럼 시기에 따라 그 쓰임의 차이

23)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王占奎 역시 제사 도구를 의미하는 하사품으로 보았다. 〈讀金隨札 — 內史亳同〉: 《考古與文物》2010年 第2期, 34-39쪽 참조.

24) 청동기 명문에 보이는 ‘裸’의 또 다른 용법으로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 경우이다. 위에서 다룬 (9)內史亳同: ‘乍(作)裸同’, (2)鮮盤: ‘裸玉三品’ 외에도 8.4121 焚簋: ‘焚(榮)各(格), 王休易(賜)畢(厥)臣父焚(榮)瓚王裸、貝百朋.’과 5.2841 毛公鼎: ‘易(賜)女(汝)秬鬯一卣、裸圭瓚寶、朱市(芾).’이 있다. 焚簋 명문의 경우 ‘瓚、王裸貝百朋’으로 끊어 읽어서 왕이 裸祭 때 사용했던 貝라고 해석하기도 하나(陳劍 〈釋西周金文的“饗(贄)”字〉: 《甲骨金文考釋論集》北京, 線裝書局, 2007, 16쪽 참조), 필자는 앞의 ‘瓚’과 붙여 읽어서 ‘왕이 裸饗 거행 시 사용했던 瓚’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

가 두드러지는 ‘裸’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噩侯鼎의 ‘裸’은 서주 중기의 용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바, ‘裸’은 噩侯鼎의 제작 연대를 서주 중기로 볼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2. 衤

噩侯鼎 명문 중의 衤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衤’으로 隸定하고 있으며, 陳秉新과 李立芳만 ‘衤’로 보고 있다.²⁵⁾ 필자가 탁본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友’의 아래 자형은 ‘口’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衤’로 隸定한 것은 아마도 이 글자와 같은 용법으로 해석되는 다른 금문 자형들이 ‘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噩侯鼎 명문의 ‘衤’에 대해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侑’나 ‘宥’와 通假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전래문헌 중에 보이는 ‘侑’ 및 ‘宥’에 대한 용례 검토를 통해 ‘衤’의 정확한 의미를 도출해보고, 이를 토대로 금문 중의 ‘衤’의 쓰임과 그 시대적 특징을 분석해보므로써 噩侯鼎의 단대 추정 근거를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아래의 전래문헌 용례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左傳》莊公十八年：“十八年春，虢公、晉侯朝王。王饗醴，命之宥，皆賜玉五穀、馬三匹。”(18년 봄, 虢公과 晉侯(진헌공)가 주혜왕을 조현했다. 주혜왕이 饗醴를 베풀고, 그들에게 잔을 돌리게 하고, 이들 모두에게 구슬 5쌍과 말 3필

다고 본다. 우선 裸祭에 貝가 사용되었다는 설정이 어색하고, ‘王裸’을 ‘瓚’을 수식하는 後置 관형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용상 玆이 왕이 소재한 곳에 玆현을 왔다가 왕에게 裸饗의 예우를 받고 더불어 이 때 사용된 瓚과 貝를 하사받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본다. 毛公鼎 명문의 경우, ‘裸圭瓚寶’를 ‘裸器인 圭와 瓚의 귀중한 물건’으로 해석하는 데는 의견이 비교적 일치한다. 이러한 쓰임의 ‘裸’은 서주 초기((9)內史堯同, 玆簋), 서주 중기((2)鮮盤), 서주 후기(毛公鼎)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25) 于省吾(《雙劍詒吉金文選》北京, 中華書局, 1998, 上二·六), 郭沫若(《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108쪽), 唐蘭(《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北京, 中華書局, 1986, 404쪽), 馬承源(《商周青銅器銘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98, 281쪽), 劉啓益(《西周紀年》廣州, 廣東教育出版社, 2002, 363쪽)은 ‘衤’으로 隸定하였으며, 陳秉新과 李立芳(《出土夷族史料輯考》合肥, 安徽大學出版社, 2005, 205쪽)은 ‘衤’으로 隸定하였다. 《商周青銅器銘文暨圖像集成》에서는 ‘衤’로 隸定하였으나, ‘友’의 아래 자형이 일반적인 ‘日’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씩을 하사했다.)

《左傳》僖公二十五年：“戊午，晉侯朝王。王饗醴，命之宥。”(戊午일 晉侯(진문공)이 주양왕을 조현했다. 주양왕이 饗醴를 베풀고, 그에게 잔을 돌리게 했다.)

《左傳》僖公二十八年：“己酉，王享醴，命晉侯宥。”(己酉일 주양왕이 饗醴를 베풀고 晉侯(진문공)에게 잔을 돌리게 했다.)

莊公 18년 기록에 대해 杜《注》는 ‘王之觀群後，始則行饗酒，示不忘古。飲宴則命以幣物。宥，助也，所以助歡敬之意.’(왕이 제후들의 朝覲을 받을 때에 처음에는 饗醴를 거행하여 옛날을 잊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고, 모두 한 곳에 모여 먹고 마실 때에는 幣物을 내리라고 명한다. 宥는 돕는 것이니 賓客이 기뻐서 주인을 존경하는 뜻이 생기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풀이하고 있고, 孔《疏》의 해석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²⁶⁾ 즉, ‘宥’를 賓客에게 선사하는 선물 혹은 선물을 선사한다는 의미(侑, 侑幣)로 본 것이다. 그러나 王引之는 《儀禮·聘禮》에 근거하여 ‘侑幣’는 食禮에 사용되는 것이지 饗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만약 杜預의 주장대로라면 ‘命之宥’가 아닌 ‘命宥之’라고 표현해야 옳다고 반박했다. 또한, 《爾雅·釋詁》의 ‘酬、酢、侑，報也.’라는 풀이를 기초로 ‘命之宥’는 虢公과 晉侯에게 왕과 서로 술을 권하도록 한 것, 즉 ‘酬酢’를 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⁷⁾ 상기한 僖公 28년에 ‘命晉侯宥’²⁸⁾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莊公 18년 ‘命之宥’의 ‘之’는 虢公과 晉侯를 가리킴이 확실하며, 동일하게 僖公 25년의 일을 기록한 《國語》의 내용을 보면 ‘宥’의 뜻은 더욱 명확해진다.

《國語·晉語四》：“王饗醴，命公侑侑。”(周襄王이 饗醴를 베풀고 晉文公에게 잔을 돌려 술을 권하라고 명했다.)

26) 孔穎達《疏》：“命之以幣物，所以助歡也。……此注命之宥者，命在下以幣物宥助。”

27) 是侑幣用於食禮，非饗禮所用也。且如杜說，‘命以幣物，以助歡’，則《傳》當云‘命宥之’，不當云‘命之宥’也。……今案《爾雅》曰：‘酬、酢、侑，報也’，則‘侑’與‘酬’、‘酢’同義。‘命之宥’者，其命虢公、晉侯與王相酬酢與，或獻或酢，有施報之義，故謂之侑。王引之《經義述聞》(南京，江蘇古籍出版社，2000)，403쪽 참조.

28) 杜預는 僖公 28년의 ‘王享醴，命晉侯宥’에 대해서도 ‘既饗，又命晉侯助以束帛，以將厚意.’(饗醴를 베풀 후에도 또 束帛으로 晉侯의 기쁨을 돕도록 명하여 厚待의 뜻을 보인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韋《注》에서는 “命’은 命服을 베푸는 것이고, ‘胙’는 제사 고기를 하사하는 것이며, ‘侑’는 幣帛을 증정하는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束帛으로 文公에게 선사한 것이다”(命, 加命服也. 胙, 賜祭肉. 侑, 侑幣. 謂既食, 以束帛侑公.)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王引之는 韋昭의 이 해석 역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胙’는 ‘酢’의 가차자로 손님이 주인에게 잔을 돌리는 예에 따라서 왕에게 술을 권한 것이라고(胙卽酢之借字, 蓋如賓酢主人之禮以勸侑於王, 故謂之酢侑與.) 풀이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左傳》에서는 ‘宥’라고 한 것을 《國語》에서는 ‘胙(酢)侑’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위에 열거한 《左傳》 세 용례 중의 ‘宥’는 왕이 베푼 饗醴에서 하사받은 술을 아랫사람이 마시고, 잔을 다시 왕에게 돌려 술을 권함으로써 謝意를 표시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噩侯鼎 명문과 대조해보면, 왕이 鄂侯에게 裸饗의 禮를 베풀어 올창주로 접대하고(裸之), 이에 鄂侯가 화답한 것을 ‘翫’로 표현했음이 추론 가능하며, 噩侯鼎 명문과 유사성이 많은 아래 《周禮》의 내용 분석을 통해 ‘翫’의 의미를 확정지을 수 있다.

《周禮·秋官司寇·大行人》: “上公之禮 ……王禮再裸而酢, ……諸侯之禮 ……王禮臺裸而酢.”(上公의 예는 ……왕이 공에게 예를 행하니, 裸禮를 두 번 행하고, 공은 잔을 돌린다. ……제후의 예는 ……왕이 제후에게 예를 행하니, 裸禮를 한 번 행하고, 제후는 잔을 돌린다.)

위에 대해 鄭《注》에서는 ‘裸’는 灌으로 읽으며, 공이 두 번 마시게 하는 것이다. 酢는 화답하여 왕이 마시게 하는 것이다(裸讀爲灌. 再飲公也. 而酢, 報飲王也.)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噩侯鼎 명문과 비교해보면 왕이 아랫사람에게 裸禮를 행하고, 아랫사람은 이를 받아 마신 후 다시 왕에게 잔을 돌리는 과정(酢, 翫)이 일치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左傳》에서 ‘잔을 돌리다’, ‘화답하여 술을 권하다’는 뜻으로 쓰인 ‘宥’는 ‘侑’의 가차자로서²⁹⁾, ‘酢’와 동의어이며, 噩侯鼎 명문 중의 ‘翫’ 역시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다. 陳秉新과 李立芳은 《禮記·玉藻》: “凡侑食, 不盡食.”(무릇 남을 접대할 때에는, 자기는 다 먹는 일이 없도록 한다.) 중의 ‘侑’를 ‘翫’의 해석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侑’는 ‘勸食’, 즉

29) 《說文解字·宀部》: “宥, 假宥爲侑.”

음식을 남에게 권유하고 대접한다는 뜻으로, 만약 ‘勸’의 의미에 초점을 둔다면 ‘耨’의 풀이에도 적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宥’나 ‘侑’가 일방이 아닌 쌍방의 상호 작용 하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권유 대상이 ‘食’과 술로 다른 점을 고려해볼 때, 噩侯鼎 명문에 꼭 들어맞는 해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다른 명문 중의 ‘耨’의 의미와 그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1) 毛公鞶(旅)鼎亦佳(唯)殷(簋), 我用飪厚眾我友, 餽其用耨(侑), 亦引唯考(孝), 肆(肆)母(母)又(有)弗鬲(順), 是用壽考. 5.2724 毛公旅方鼎 (毛公鞶鼎 역시 簋이다. 나는 이 簋에 풍성한 음식을 담아 나의 동료들에게 베풀어 배불리 먹도록 권할 것이며, 부모님께 제사도 지낼 것이다. 이따로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장수하기를 기원하노라.)

(11)毛公旅方鼎 명문에서는 ‘友’와 ‘耨’이 동시에 출현하고 있는데, 그 뜻에 따라 자형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문맥상 ‘耨’을 噩侯鼎 명문에서의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언급했던 《禮記·王藻》에 보이는 ‘侑’(음식을 대접하다, 음식을 권하다)의 의미로 보는 것이 여기에서는 적합하며, 《詩·小雅·楚茨》: “以爲酒食, 以享以祀, 以妥以侑, 以介景福.”(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제물을 차리고 제사지내네. 尸童을 모셔놓고 술을 권하며, 큰 복을 내려주시기 비네), 《儀禮·特牲饋食禮》: “尸三飯, 告飽. 祝侑, 主人拜.”(시동이 세 번 밥을 뜨고 배불리 먹었다고 고한다. 축이 권하고 주인은 절을 한다)에서의 ‘侑’ 역시 모두 이와 같은 뜻이다. 毛公旅方鼎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서주 초기와 서주 중기로 그 의견이 나뉘지는데, 필자는 명문에 쓰인 ‘壽考’를 근거로 본 기물을 서주 중기의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³⁰⁾

- (12) 佳(唯)王初女(如)𠄎, 廼(乃)自商白(師)復, 還至于周. 王夕卿(饗)醴于大室, 穆公耨(侑). 8.4191 穆公簋蓋 (왕께서 처음으로 𠄎 지역에 오셨다가, 商師에서 成周로 돌아가셨다. 왕

30) 拙稿 〈金文 綴辭 ‘永令(命)’·‘壽考’·‘壽老’에 대한 재고〉: 《中國文學研究》第39輯, 2009年, 181-199쪽 참조.

께서 저녁 때 大室에서 饗醴를 거행하시고, 穆公은 술잔을 돌렸다.)

- (13) 王才(在)周康寤(寢), 卿(饗)醴, 師遽茂歷(歷), 春(侑). 16.9897 師遽方彝

(왕께서 康宮의 後寢에서 饗醴를 베푸사, 師遽가 격려를 받고, 잔을 되돌렸다.)

- (14) 王才(在) 應侯, 卿(饗)醴(醴). 雁(應)侯見工春(侑).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3.430 應侯見工簋

(왕께서 應侯에서 饗醴를 베푸셨고, 應侯 見工은 잔을 되돌렸다.)

위의 세 금문 용례에서는 왕이 饗醴를 거행하고 기물제작자가 ‘春’을 한다는 공통된 기록이 보이며, 내용상 앞서 검토했던 《左傳》의 세 용례와 형식상 매우 유사한 점을 볼 때, ‘春’은 답례로 술잔을 돌리다란 뜻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左傳》에서는 문장 구조상 ‘春’의 주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금문 용례에서는 ‘春’ 앞에 행위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 《左傳》의 옛 주석들의 오류를 바로잡는 증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청동기 명문에서 ‘春’은 應侯鼎을 포함하여 모두 다섯 용례가 보이는데, (11)毛公旅方鼎 명문에서만 ‘음식을 권하다’란 뜻으로 쓰였고, 나머지 네 용례는 모두 ‘술잔을 돌리다’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1)毛公旅方鼎을 비롯하여 (12)穆公簋蓋, (13)師遽方彝, (14)應侯見工簋는 모두 서주 중기의 기물로, ‘春’의 의미 항목에 관계없이 이 글자가 모두 동일한 시기에 출현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특징은 應侯鼎의 시대를 가늠하는 참고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卿

‘卿’은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모양인 ‘卯’와 ‘冫’으로 구성된 글자로, 학자에 따라 ‘冫’이나 ‘會’로 본다. 孫詒讓은 ‘冫’을 聲符로 보고, ‘冫’과 가깝다고 했고³¹⁾, 陳夢家是 ‘冫’에서 파생된 글자로 경전에서는 ‘冫’으로 쓴다고 설명했다.³²⁾ 이외에도, 劉宗漢은 이 글자를 ‘冫’의 繁構로 보고,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은 형태를 통해

31) 孫詒讓《古籀拾遺·古籀餘論》(北京, 中華書局, 2005), 下·十五 참조.

32) 陳夢家《西周銅器斷代》(上冊) (北京, 中華書局, 2004), 218쪽 참조.

사람들을 모은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했으며³³⁾, 郭沫若과 唐蘭 모두 ‘畚’으로 읽었다.³⁴⁾ 吳闓生, 楊樹達, 馬承源은 《說文解字》에 ‘畚’의 古文으로 ‘俗’이 제시된 것을 근거로 삼아 ‘畚’로 읽었고³⁵⁾, 于省吾 역시 ‘畚’와 通假된 것으로 보았다.³⁶⁾ 이 밖에 張亞初와 《商周靑銅器銘文暨圖像集成》에서는 ‘俗’으로 읽었는데³⁷⁾, 《說文解字》에 ‘俗’은 ‘畚’으로 풀이가 되어 있다.

‘踰’의 구성요소에 ‘畚’이 있기 때문에 ‘畚’의 通假字로 읽을 수도 있고, ‘畚’과 ‘會’는 互訓이 되는 관계이므로 ‘畚’ 또는 ‘會’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噩侯鼎 명문에서는 ‘駿(馭)方踰(合, 會)王射’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이와 비슷한 형식의 금문 문례를 비교해봄으로써 ‘踰’의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5) 王大藉(藉)農于謀田, 餉(觴). 王射, 有嗣(司)眾師氏、小子踰(合, 會)射. 5.2803 令鼎
(왕께서 謀田에서 성대하게 藉田 의식을 거행하시고, 연회를 베푸셨다. 왕께서 射禮를 여시고, 有司, 師氏, 小子가 짝을 이루며 射禮를 행했다.)
- (16) 王眚(以)吳奉、呂鬲踰(合, 會)斨(鬲)、蓋自(師)、邦君射于大池. 8.4273 靜簋
(왕께서 吳奉 및 呂鬲과 함께 鬲 지역의 관장, 蓋 지역의 관장, 邦國의 군주와 짝을 이뤄 辟池(辟雍 내의 環水)에서 射禮를 거행하셨다.)
- (17) 王才(在)魯, 踰(合, 會)即邦君、者(諸)侯、正、有嗣(司)大射. 15.9453 義盃蓋
(왕께서 魯 지역에 계실 때, 소국의 군주와 제후와 관장, 有司가 짝을 이뤄 보좌하며 大射禮를 거행했다.)

‘踰’의 쓰임에 있어 噩侯鼎 명문과 위 세 용례의 공통점은 이 글자가 모두 射禮

33) 劉宗漢 《〈頤方彝〉考釋》: 《古文字研究》第26輯(北京, 中華書局, 1989), 228쪽 참조.
34)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30쪽; 唐蘭 《西周靑銅器銘文分代史徵》(北京, 中華書局, 1986), 230쪽 참조.
35) 吳闓生 《吉金文錄》(北京, 中國書店, 1963), 一·一四; 楊樹達 《積微居金文說(增訂本)》(北京, 中華書局, 1997), 1쪽; 馬承源 《商周靑銅器銘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88), 70쪽 참조.
36) 于省吾 《雙劍謠吉金文選》(北京, 中華書局, 1998), 上二·六 참조.
37) 張亞初 《殷周金文集成引得》(北京, 中華書局, 2001), 50쪽 참조.

과정을 묘사하는 장면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15) 夬鼎 명문만을 보면 ‘躑射’를 ‘會射’, 즉 한자리에 모여 射禮를 행하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噩侯鼎, (16) 靜簋, (17) 義盃蓋 명문 중의 ‘躑’가 모두 官名이나 호칭을 목적어로 지니고 있는 점을 볼 때, ‘躑’는 누군가와 동반하여 射禮를 거행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陳夢家는 이러한 射禮가 시합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躑’를 ‘작하다’는 뜻으로 해석했는데³⁸⁾, 가장 정확한 풀이라 생각된다.³⁹⁾ 즉, 噩侯鼎 명문의 ‘馭(馭)方躑王射’는 馭方이 왕과 짝을 이뤄 射禮를 행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16) 靜簋 명문의 경우, ‘躑’字를 중심으로 복수의 인원이 출현한 점과 《儀禮》에 보이는 ‘三番射’ 등의 儀節을 고려한다면, 팀을 나누어 시합의 방식으로 射禮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15) 夬鼎 명문의 ‘躑射’는 ‘躑’ 뒤에 목적어가 없으나, 필자는 ‘王’이 생략된 것으로 보며, ‘有嗣(司)’, ‘師氏’, ‘小子’가 왕과 서로 짝을 이루며 射禮를 거행했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관련 명문을 탐독한 결과, ‘躑’는 아랫사람이윗사람을 보필하는 차원에서 짝이 된다는 뜻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17) 義盃蓋 명문 중의 ‘躑卽’과 15.9455 長由盃 및 4.2459 交鼎 명문에 보이는 ‘逖(仇)卽’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18) 穆王鄉(饗)豐(醴), 卽(攸)井(邢)白(伯)、大祝射, 穆王蔑長由卽(以)逖(仇)卽(攸)井(邢)白(伯). 15.9455 長由盃
(穆王께서 饗醴를 여시고, 長由는 邢伯과 大祝을 보좌해 射禮를 거행했다. 穆王께서는 長由가 邢伯과 짝을 이뤄 보필한 것을 격려하셨다.)
- (19) 交從畀(戰⁴⁰⁾), 逖(仇)卽(攸)王. 易(賜)貝, 用乍(作)寶彝. 4.2459 交鼎
(交的 왕을 따라 출정하여 왕과 짝을 이뤄 보필하였다. 왕께서 貝를 하사 하셨으니,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귀중한 제기를 제작하노라.)

먼저 위의 두 용례에 세 차례 등장하는 ‘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就’(도착하

38) 陳夢家《西周銅器斷代》[上冊] (北京, 中華書局, 2004), 218-219쪽 참조.

39) ‘合’이 짝과 관련된 의미로 쓰인 예는 다음과 같다. 《爾雅·釋詁》: “偶, 合也.” 《詩·大雅·大明》: “文王初載, 天作之合.” (문왕이 즉위하신 첫 해에 하늘이 배필을 마련하셨다.) 鄭《箋》: “合, 配也.”

40) 唐蘭은 ‘畀’를 ‘狩’로 읽었으나, 필자는 裘錫圭의 견해를 따랐다. 陳劍〈據郭店簡釋讀西周金文一例〉; 《甲骨金文考釋論集》(北京, 線裝書局, 2007), 28-29쪽 참조.

다, ‘比次’(순서에 따라), ‘攸’(돕다) 등의 해석이 있어왔다.⁴¹⁾ 필자는 (18)長由盃 명문의 ‘卽井(邢)白(伯)、大祝射’가 噩侯鼎 명문의 ‘躑+동반대상(王)+射’와 문장 구조상 흡사하기 때문에 ‘卽’이 ‘躑’과 유사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보았지만, 전래 문헌 상에 짝하다 혹은 동반하다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卽’의 용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므로 일단 여기서는 ‘攸’의 통가자로 보는 견해를 취했다. ‘述(仇)卽(攸)’은 ‘邢伯(長由盃)’ 및 ‘王(交鼎)’과 짝을 이뤄 보좌했다는 뜻으로, ‘述(仇)卽’과 (17)義盃蓋 명문의 ‘躑卽’은 유의어로 판단되며, ‘述(仇)’와 ‘躑’의 의미는 일치한다. 이렇듯 射禮가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躑’은 단순히 함께 의식을 진행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짝을 지어 활쏘기를 겨룬다는 뜻을 나타내며, 射禮 관련 명문이 모두 서주 초중기에 출현하는 만큼, ‘躑’ 역시 모두 이 시기에 보이고 있다.

射禮 관련 명문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쓰인 ‘躑’도 있는데, 아래 문례를 보도록 하자.

- (20) 乍(作)父癸旅宗(尊)彝, 其(以)父癸夙夕躑(合, 會)爾百聞(婚)邁(媾). 10.5401 卣卣
(先父 日癸를 제사지내기 위한 종묘 예기를 제작하였으니, 先父 日癸를 위해⁴²⁾ 조석으로 너의 많은 친인척과 회합하길 바라노라.)
- (21) 啓(肇)頂(躑)躑(合, 會)宁百生(姓), 揚, 用乍(作)高文考父癸寶(尊)彝. 16.9892 頂方彝
(頂가 처음으로 異姓 귀족들과의 회합을 가졌고, (모임이 끝난 후) 물려갔다.⁴³⁾ 위대하신 先父 癸를 제사지내기 위한 귀중한 제기를 제작하였다.)

41) ‘就’의 의미로 해석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李亞農 〈長由盃銘釋文注解〉: 《考古學報》1955年 第9冊, 177쪽; 陳夢家 《西周銅器斷代》(上冊) (北京, 中華書局, 2004), 142쪽; 孫稚離 〈長由盃銘文滙釋〉: 《古文字研究》第13輯(北京, 中華書局, 1986), 204쪽; 唐蘭 《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北京, 中華書局, 1986), 377쪽;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88), 105쪽 참조. ‘比次’는 金美京의 의견으로 陳劍이 소개한 바 있고, 陳劍과 王輝는 ‘攸’의 통가자로 보았다. 陳劍 〈據郭店簡釋讀西周金文一例〉: 《甲骨金文考釋論集》(北京, 線裝書局, 2007), 27-28쪽; 王輝 《商周金文》(北京, 文物出版社, 2006), 108쪽 참조.

42) 많은 학자들이 ‘目(以)’를 동반을 나타내는 ‘與’로 풀이하나, 필자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 ‘爲’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43) 이 명문을 인용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揚用乍(作)高文考父癸寶(尊)彝’로 끊어 읽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用乍(作)……’ 앞에는 기물 제작자의 이름이 위치하므로, 이

위 두 용례 중의 ‘躑’은 ‘聞(婚)邁(媾)’ 및 ‘百生(姓)’과 회동을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며, (21)頂方彝 명문에서는 모으다(聚)는 뜻으로 해석되는 ‘宀’와 결합하여 동의관계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의 ‘躑’은 서주 초기에 출현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서주 초중기에만 보이는 ‘躑’이 噩侯鼎 명문에도 보인다는 사실은 이 명문이 서주 초중기의 풍격을 계승하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그러나 噩侯鼎의 기물 형태 및 字體가 서주 초기의 것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최종적인 시대 판정에 있어서는 서주 초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噩侯鼎의 주조 시기는 자연스럽게 서주 중기로 귀결된다.

4. 戚

필자는 다른 논문에서 청동기 명문 중 ‘戚’의 용법에 따른 시대적 특색을 고찰한 바 있다.⁴⁴⁾ 당시 내린 결론은 ‘모두, 다’로 해석할 수 있는 일종의 범위부사로 쓰인 ‘戚’은 한 용례를 제외하고는 春秋戰國시기에 출현하지만, 단독으로 句를 이루거나 ‘戚+동사 성분’의 형태로 쓰여 ‘마치다’, ‘완료하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동사 용법의 ‘戚’은 噩侯鼎을 제외한 모든 용례가 서주 초중기에 보인다는 것이었다. 噩侯鼎의 제작 시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채, 당시에는 噩侯鼎 명문을 예외 사항으로 처리하였지만, 지금 필자가 噩侯鼎을 서주 중기의 기물로 판단하는 상황에 근거해보면, 이는 예외 사항이 아니라, 噩侯鼎 명문의 서주 초중기적 특색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은 정확한 讀法이 아닌 것 같다. 馬承源은 ‘揚’을 ‘물러날 때의 모습’(告退的一種姿態)으로 해석했는데, 《禮記·玉藻》에 “古之君子 ……進則揖之, 退則揚之.” (옛날의 군자는 ……나아감에는揖하듯이 하고 물러감에는揚하듯이 한다.)라는 기록이 있고, 이것에 대해 鄭(注)는 “揖之謂小俯, 見于前也. 揚之謂小仰, 見于後也.” (揖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앞을 보는 것이다. 揚은 약간 고개를 들고 뒤를 보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商周青銅器銘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88, 97쪽 참조) ‘揚’을 단독으로 끊어 읽은 馬承源의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揚’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서서는 일단 馬承源의 견해를 취하도록 하겠다.

44) 拙稿 〈西周 초기 금문 어휘와 이를 활용한 청동기 斷代 연구 — 孟簋와 伯唐父鼎을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第47輯, 2012年, 84-90쪽 참고.

IV. 결론

본고는 각 시대의 어휘 및 구문에는 출현 빈도, 용법 및 의미에 있어 해당 시기만의 특징이 존재한다는 각도에서 출발한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醜侯鼎 명문에 보이는 ‘裸’, ‘𩇛’, ‘𩇛’, ‘咸’을 제작 시기 판정의 근거 자료로 삼고, 제작 시기에 대해 의견이 달랐던 醜侯鼎에 대한 시대 比定 작업을 진행해보았다.

먼저 ‘裸’의 경우, 여러 종류의 자형에 대해서 자루 형태(𩇛)나 국자 형태(𩇛)의 ‘瓚’을 손에 쥐고 裸禮를 행하거나 ‘瓚’을 이용해서 ‘鬯’ 같은 盛酒器에서 술을 퍼서 裸禮를 거행하고 있는 모양(𩇛) 등으로 분석했다. 다시 말해, ‘裸’의 자형에서 ‘卍’ (혹은 ‘又’)과 ‘冂’ 편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瓚’ 자체인 것도 있지만, ‘瓚’과 ‘鬯’ 등의 酒器가 결합된 형태도 있으며, 기물의 깊이에 따라 자루 모양이 각기 다른 ‘瓚’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였다. ‘裸’의 의미에 있어서는, 서주 초기에는 裸祭 및 裸器의 의미가 출현 및 유행하였고, 서주 중기에 들어와서는 裸饗를 거행한다는 동사 용법의 ‘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醜侯鼎의 ‘裸’은 서주 중기의 용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바, 이는 醜侯鼎의 제작 연대를 서주 후기보다는 서주 중기로 앞당길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𩇛’는 전래문헌 상에서 ‘侑’나 ‘宥’와 通假되는데, 역대 주석가들은 賓客에게 선사하는 선물로 해석했으나, 王引之는 《爾雅》 및 문장 구조를 근거로 이러한 ‘侑’나 ‘宥’는 잔을 다시 왕에게 돌려 술을 권한다는 ‘酢’의 의미라는 것을 밝혀냈고, 이러한 해석은 醜侯鼎 명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醜侯鼎 명문의 ‘𩇛’는 다른 명문에서는 ‘𩇛’로 쓰이는데, 毛公旅方鼎 명문에서는 ‘음식을 권하다’란 의미로 사용되었고, 다른 세 용례에서는 모두 醜侯鼎 명문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비록 구체적 의미는 다르지만, ‘𩇛’는 모두 서주 중기 기물에 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색은 醜侯鼎의 제작 시대 추정에 유용한 판단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서주 초중기에만 출현하는 어휘들 역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데, ‘𩇛’ 또는 ‘𩇛’와 通假되어 ‘작하다’ 및 ‘회합하다’의 뜻으로 해석되는 ‘𩇛’, ‘마치다’, ‘완료하다’로 풀이되는 ‘咸’은 모두 그 출현 하한선을 서주 중기로 설정할 수 있다. 醜侯鼎의 기물 형태 및 字體를 고려해볼 때, 서주 초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이 기물의 주조 시기는 서주 중기로 가늠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噩侯鼎 단대 판정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어휘 및 구문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噩侯鼎을 제외한 '唯還'의 두 용례 및 '于'를 이용한 피동 형식이 모두 서주 초기에 보이고, '동사 술어+自+명사' 처럼 전치사구가 동사 술어 뒤에서 보어 역할하고 있는 문형이 서주 초중기에 90%에 가깝게 집중 사용되고 있는 현상들은⁴⁵⁾ 噩侯鼎 명문이 서주 초중기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서주 중기에만 출현하는 어휘가 보인다는 점과 서주 초중기 명문의 풍격을 강하게 계승하고 있으나, 기물의 형태, 紋飾, 字體면에서 서주 초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을 종합해볼 때, 噩侯鼎의 제작 시기는 서주 중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 郭沫若 〈禹鼎跋〉: 《光明日報》1951年7月7日.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79.
 唐蘭 《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北京, 中華書局, 1986.
 劉翔 〈周夷王經營南淮夷及其鄂之關係〉: 《江漢考古》1983年 第3期.
 劉雨 〈西周金文中的射禮〉: 《金文論集》北京, 紫禁城出版社, 2008.
 劉雨, 盧岩 編 《近出殷周金文集錄》北京, 中華書局, 2002.
 劉雨, 嚴志斌 編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北京, 中華書局, 2010.
 劉宗漢 〈《頤方彝》考釋〉: 《古文字研究》第26輯, 北京, 中華書局, 1989.
 劉啓益 《西周紀年》廣州, 廣東教育出版社, 2002.
 李亞農 〈長由盃銘釋文注解〉: 《考古學報》1955年 第9冊.
 李學勤 〈談西周厲王時器伯戣父簋〉: 《文物中的古文明》北京, 商務印書館, 2008.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北京, 文物出版社, 1988.
 方稚松 〈釋殷墟花園莊東地甲骨中的攢、裸及相關諸字〉: 《中原文物》2007年 第1期
 孫慶偉 〈周代裸禮的新證據 — 介紹震旦藝術博物館新藏的兩件戰國玉攢〉: 《中原文物》2005年 第1期.

45) 拙稿 〈西周 中期 金文 어휘와 이를 활용한 靑銅器 斷代 연구 — 乖伯歸斧簋를 중심으로〉: 《中國言語研究》第51輯, 2014年, 195-198쪽 참조.

- 孫稚雛 〈長由盃銘文滙釋〉:《古文字研究》第13輯,北京,中華書局,1989.
- 孫詒讓《古籀拾遺·古籀餘論》北京,中華書局,2005.
- 楊樹達《積微居金文說(增訂本)》北京,中華書局,1997.
- 楊寬《西周史》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9.
- 葉正渤《金文標準器銘文綜合研究》北京,線裝書局,2010.
- 吳闔生《吉金文錄》北京,中國書店,1963.
- 吳鎮烽〈內史亳豐同的初步研究〉:《考古與文物》2010年 第2期.
- 吳鎮烽 編著《商周青銅器銘文暨圖像集成》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
- 王引之《經義述聞》南京,江蘇古籍出版社,2000.
- 王占奎〈讀金隨札 一 內史亳同〉:《考古與文物》2010年 第2期.
- 王輝《商周金文》北京,文物出版社,2006.
- 容庚《金文編》北京,中華書局,1985.
- 容庚《商周彝器通考》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8.
- 于省吾《雙劍謠吉金文選》北京,中華書局,1998.
- 張亞初《殷周金文集成引得》北京,中華書局,2001.
- 臧振〈玉瓚考辨〉:《考古與文物》2005年 第1期.
- 曹淑琴〈罍器初探〉:《江漢考古》1993年 第2期.
- 拙稿〈金文 假辭‘永令(命)’·‘壽考’·‘壽老’에 대한 재고〉:《中國文學研究》第39輯,2009.
- 拙稿〈西周 中期 金文 어휘와 이를 활용한 靑銅器 斷代 연구 一 乖伯歸鋒簋를 중심으로〉:《中國言語研究》第51輯,2014年.
- 拙稿〈西周 초기 금문 어휘와 이를 활용한 청동기 斷代 연구 一 孟簋와 伯唐父鼎을 중심으로〉:《中國文學研究》第47輯,2012年.
- 朱鳳瀚〈由伯戠父簋銘再論周厲王征淮夷〉:《古文字研究》第27輯,北京,中華書局,2008.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殷周金文集成》北京,中華書局,1984-1994.
- 陳劍〈據郭店簡釋讀西周金文一例〉:《甲骨金文考釋論集》北京,線裝書局,2007.
- 陳劍〈釋西周金文的“𨾏(𨾏)”字〉:《甲骨金文考釋論集》北京,線裝書局,2007.
- 陳夢家《西周銅器斷代》北京,中華書局,2004.
- 陳秉新,李立芳《出土夷族史料輯考》合肥,安徽大學出版社,2005.
- 陳初生《金文常用字典》高雄,復文圖書出版社,1992.
- 陳佩芬〈上海博物館新收集的西周青銅器〉:《文物》1981年 第9期.
- 彭裕商《西周青銅器年代綜合研究》成都,巴蜀書社,2003.
- 許慎 撰,段玉裁 注《說文解字注》臺北,黎明文化事業公司,1996.

洪家義《金文選注釋》南京，江蘇教育出版社，1988。

【中文提要】

利用西周中期金文詞彙的特點對青銅器斷代所進行的研究 — 以噩侯鼎為例

詞彙斷代法主要是根據各時期的詞彙所具有的出現頻率、用法以及意義上的特徵，對斷代不清的青銅器上的詞彙進行考察，進而以此判斷該器物的時代。以這種觀點為出發點，通過噩侯鼎銘文所見的‘裸’，‘吝’，‘𣦵’，‘咸’等一些金文詞彙為據，探究歷來諸家說法不一的噩侯鼎。

首先，對‘裸’的字形，我們分析為有的字形象手持長柄形瓚(𣦵)或大勺形瓚舉行裸禮之形(𣦵)，有的象用瓚從‘畐’等盛酒器酌酒進行裸禮之形(𣦵)。換句話說，除了‘丩’(或‘又’)和‘口’偏旁以外，其它部分有的是‘瓚’，有的是‘瓚’和‘畐’等盛酒器結合之形，還有，按照盛酒器的腹部深度使用不同形狀的‘瓚’。我們考察‘裸’字的意義，發現意為裸祭和裸器的‘裸’流行於西周初期，而意為舉行裸饗之禮的‘裸’皆出現於西周中期。在噩侯鼎銘文裡的‘裸’字屬於後者的意義，這些現象有助於判定噩侯鼎的鑄造年代。

其次，‘吝’字讀為傳世文獻中的‘侑’或‘宥’，歷來衆多注釋家將此解釋為侑賓的禮物(即侑幣)，但王引之根據《爾雅》的解釋和《左傳》句型指出這些‘侑’和‘宥’應為‘酢’意，即回敬的意思。噩侯鼎銘文中的‘吝’字，在其他銘文裡寫作‘吝’字，這些‘吝’和‘吝’字雖其意義稍微不同，如毛公旅方鼎銘文中的‘吝’字表示勸食，而其他的卻表示勸酒。無論如何，這些‘吝’字都見於西周中期。

第三，讀為‘合’或‘會’、解釋為匹配或會合的‘𣦵’字，以及表示‘完畢’或‘全過程順利結束’的‘咸’字，其出現時代皆不晚於西周中期。我們考慮到噩侯鼎的形狀、紋飾、字體，可以排除西周初期的可能性，那麼將它可定為西周中期之器物。

另外，除了噩侯鼎的文例以外，其他‘唯還’與‘于’字被動格式只見於西周初

期, ‘動詞謂語+自+處所’의 句型的90%集中使用於西周初中期, 這些現象充分反映噩侯鼎銘文明顯地具有西周初中期銘文的特徵。

總而言之, 以此些銘文詞彙的特徵爲據, 我們可以判定噩侯鼎爲西周中期之物。

【主題語】

噩侯鼎, 斷代, 西周, 金文, 靑銅器, 銘文

투고일: 2014. 7. 15 / 심사일: 2014. 7. 20~8. 5 / 게재확정일: 2014. 8. 10
